

농촌 빈집, 마을호텔로 바뀐다... 경북도, 인구유입 촉진 박차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에
청도군 화양읍 선정... 10.5억 확보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21억 투입
관광객 유치·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경북도가 올해부터 농촌 빈집 재활
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 신규사업 공모(전국 3곳)에 경북 청도군 화양읍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시작하는 이 사업은 늘어가는 농촌 빈집을 정비해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이자는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부터 3년간 지구당 총사업비 21억원(국비+지방비)이 투입돼 빈집을 주거·위계이션, 문화·체험, 창업 공간 등 지역 주민들과 유입 인구가 상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다로리 마을호텔 사업.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 주민 등 민간 참여, 사업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이 지자체와 공동 기획하고, 사업대상지 주민을 포함한 사업추진협의체도 구성해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게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청도군은 화양읍 다로리, 삼신리, 송금리 일원의 빈집 10개를 마을호텔 8동, 마을 영화관 1동, 마을 서점 1동으로 바꾼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업인 사회적기업 다로리인이 참여해

마을 호텔 8동을 장기 스테이 3동, 단기 스테이 2동, 게스트 하우스 3동으로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게 된다.

경북도는 철저한 준비로 앞으로의 유사 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의 농촌마을 유희자원(빈집) 조사가 끝나면 시군별 빈집 정비 계획을 세워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반기부터 농식품부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키로 하는 등 농촌 유입 인구의 주거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은 소유주 동의를 얻은 활용가능한 빈집을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매물로 등록해 거래를 증개토록 하는 사업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장성군, '1000만 관광도시'로 도약

'장성 방문의 해' 관광프로젝트
내달까지 전남체전 등 행사 이어져

전남 장성군이 '1000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알차게 준비한 '2025 장성 방문의 해' 관광프로젝트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장성군은 4~5월 두 달간 장성 전역에서 전남체전, 락페스티벌, 축제, 각종 이벤트가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2일 밝혔다.

전남체전(4월18~21일)을 시작으로 성장장성 락페스티벌(4월19일), 전남 장애인체전(4월30일~5월2일), 길동무 꽃길축제(5월10~11일)가 이어진다.

가장 많은 참여가 예상되는 콘텐츠는 '영수증 리뷰 이벤트'다.

먼저 '4~5월 장성 방문의 달' 기간에 장성 지역 음식점, 커피숍,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인증사진을 남겨야 한다.

/장성(전남)=양수녕 기자 ysn6313@

이어 '네이버 영수증 리뷰'를 작성 후 장성역 '여행자 플랫폼'을 방문해 리뷰 화면을 보여주면 2만~7만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자가용 없이 장성 여행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반값 관광택시'도 운영한다. 3시간, 5시간, 8시간 코스로 구성된 택시는 이용 요금의 50%를 장성군이 부담한다.

축령산 편백숲 등산객들이 코스를 완주한 후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무료 이동 수단 '명품숲 투어 어게인'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모든 콘텐츠는 장성을 찾은 방문객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예약 진행은 '장성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거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거창군

거창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농식품부 공모 선정... 30억 투입

거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2025년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체류형 복합단지 사업은 도시민에게 영농 체류의 체류 공간 및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복합 제공함으로써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거창군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

부 사업 계획에 따라 체류 단지와 기존 인프라를 연계한 '연계 조성'으로 공모에 참여했으며 전국 12개소 시군이 경쟁한 가운데 최종 선정됐다.

군은 2025년부터 3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해 옛 하성초등학교 폐교 부지에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류 시설 18호 조성 ▲커뮤니티센터 및 농기구 보관창고 리모델링 ▲플레이그라운드 정비 등 4도3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체류·여가·영농이 결합된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울산시,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

3년간 국비 3억 지원받아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울산을 비롯해 여수, 군산, 원주 등 4개 지역이 선정됐다.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으로 울산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비 국제회의지구'란 향후 국제회의복합지구로의 성장과 지정을 준비하는 전략적 단계로, 전시복합산업 인프라와 지역 자원을 연계해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 2021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개관 이후 전시복합산업기

반을 확충해왔다. 이번 선정은 산업·비즈니스 중심의 국제회의 유치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사업 전담기관인 울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전문 회의시설(UECO)과 집적시설(울산암각화박물관 등)과의 연계 콘텐츠 개발, 국제회의 유치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울주군 일원 약 340만㎡를 '타임로드 컨벤션시티 울산(TimeRoad Convention City, Ulsan)'이라는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내세워 도시의 과거(암각화 박물관)-현재(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미래(UECO)를 연결하는 세 개의 주제 공간(테마존)을 중심으로 회의지구를 구성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문화유산 경관 정비사업' 추진

나정·성동동 일원에 12억 예산 투입

경주시가 추진 중인 나정과 성동동 일원의 문화유산 경관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문화유산 탐방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총 1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먼저 '나정 경역정비사업'은 탐동 700-1번지 일원에서 지난해부터 오는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총 6.5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정비 내용은 탐방로 설치, 배수로 정비 주차장 조성, 잔디 식재, 수

목 정비 등이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실시실계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1~2월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성동동 4번지 일원에서는 전라주 주변 경관 정비사업도 병행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부터 오는 12월까지 2년간 진행되며, 총 5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정비 대상은 탐방로, 울타리, 로프 펜스 설치를 비롯해 이동식 화분, 피걸러와 벤치 등 편의시설, 문화유산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 등이다.

/경주(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미안마 지진피해에 10만弗 지원

부산시는 최근 미안마 중부 만달레이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원화 약 1억5000만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미안마 양곡시와 국제 자매도시로서 오랜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시는 올해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 지원, 지난해 일본 지진 피해 지원 등 국제적인 재난 발생 시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완도군

'성인 문해 교육지원사업' 선정

완도군은 올해 교육부 주관 '성인 문해 교육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7600만원에서 51.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남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비 확보로 60여 개의 문해교실 운영과 600여 명이 등록된 문해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사업 선정으로 생활 문해, 디지털 문해, 금융 문해, 체험 학습 등을 강화하고, 교육용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를 지원하여 성인 학습자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포항상공회의소

내일채움공제 위탁판매기관 선정

포항상공회의소(회장 나주영)는 중소기업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위탁판매기관으로 선정됐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근속 시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통해 인력 유지 및 기술축적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 대비 최대 3배이상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자산형성과 안정된 경력설계에 도움이 된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전남도

섬 기차여행 상품 12개 출시

전남도가 코레일과 협력해 봄맞이 가고 싶은 섬 기차여행 상품 12개를 출시했다.

이번 여행 상품은 여수·남도, 진도 관매도 등 5개 섬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봄을 맞아 섬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섬 여행객들에게 1인당 4만~6만 원의 인센티브와 KTX 왕복 열차비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섬 기차여행은 서울-경기-충북 등 내륙지역 여행객이 KTX를 이용, 전남을 방문하고 섬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기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특히 올해는 부산, 경남권 여행객을 위한 경전선 연계 상품도 새롭게 출시됐다. /전남=양수녕 기자